"나비효과"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조의 "브라질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라는 강연의 제목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세상사람들이 읽는다면 그들은 나비효과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 보면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때부터일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애굽에서 팔릴 때에도 왕의 신하 중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꾸며낸 거짓에 의한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필 그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또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해석한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그 일이 있고 2년 후에 바로도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침 왕궁으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바로가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수염도 깎지 못하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급하게 단장을 하고 왕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만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창41:40-41).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왕의 버금수레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기르고 스펙을 쌓아 승진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온 종의 신분에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올 때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 팔려 갈 때에는 다시 고향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기만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서두에 나비효과의 의미를 말씀 드리면서 "어떤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어떤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나비효과가 맞을 것입니다. 브라질의 나비와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연결시키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된 것,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의 해석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다시 재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승승장구하시고, 형통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계실 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거듭 발생하여 지칠 대로 지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산을 오르는 오르막인지 아니면 한 없이 내려가는 내리막인지는 알 수 없지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은 목적지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꿈을 해석해주어 복직에 성공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다시 찾지 않았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이 실망하거나 낙심했다는 기록은 찾아 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그 때, 언제 이곳을 나가게 될지 도무지 기약이 없어 앞이 캄캄할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야 밖에서 바로의 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의 끝에 형들을 만나고서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다음 상황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고 계시는 타임라인 중에 어느 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어느 한 시점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 나의 교만을 낮추기 위한 과정,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한 과정,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 등 우리의 인생의 과정의 연속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밖에서, 우리의 손이 다다르지 않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